

#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간]

2023. 6. 27.(화)

## □ 경남 기사

- 도내 건설현장 특별단속 105명 송치·15명 구속 (경남신문)
  - 전임비·월레비 등 금품 갈취 죄다
- 창녕 열병합발전소 '환경파괴', '지역발전' 대립 (경남일보)
  - 고형연료 연소 시 오염 물질 배출 / 사업 시행사 "기준 이하로 억제"

홍 보 담 당 관 실

금은방 돌며 귀금속 훔친 20대 2명 구속

양산경찰서는 도내 일대 금은방을 돌며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2일 오전 3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금은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 안에 있던 금팔찌 등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9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3시 50분께 양산시 한 금 거래소에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범행을 시도했으나 귀금속이 전시돼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 등이 부산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부산에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 19점도 모두 회수했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손인준기자

< 형사와 통보 >

도내 건설현장 특별단속 105명 송치·15명 구속

전임비·월레비 등 금품 갈취 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00일간 벌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0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은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레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51명(4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현장 출입 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5명(4.8%) 순

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남·부산·울산 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9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또 경남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8곳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현장에서는 기존에 작업 중이던 장비를 철수시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980만원을 갈

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외에도 현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36건(109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노조 주도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당초 전날까지였던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조직적인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 수사와 통보 >

## 慶南日報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004면 사회

### 사천 '펜션 추락사고' 난간 부실시공

속보=사천 한 펜션에서 발생한 투숙객 추락 사고는 베란다 난간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경남일보 6일자 4면 보도)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0시 20분께 사천 한 펜션에서 투숙객 2명이 2층 복도 난간에 기대 담배를 피웠다. 그러다 갑자기 난간이 무너지며 이들은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0대 A씨가 숨졌으며 50대 B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증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당시 난간과 바닥 이음매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투숙객 체중을 견디지 못한 난간이 무너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난간은 약 1m 높이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졌다. A·B씨는 직장동료 사이로 부산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사천으로 여행을 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펜션 관리인과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병기기자

< 형사과 통보 >

# 창녕 열병합발전소 ‘환경파괴’, ‘지역발전’ 대립

고형연료 연소 시 오염 물질 배출  
환경단체 “주민 건강·환경 위협”  
사업 시행사 “기준 이하로 억제”  
“지역민 200명 우선 채용 할 것”

창녕군 대합면 일원에 신축을 추진중인 ‘고형연료처리(SRF) 열병합발전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역 환경단체 등은 “고형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이 사업 시행사는 “다단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춰 오염 물질 배출을 환경부 기준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창녕군은 “창녕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해당 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업체인 ‘에쿠스’ 자회사인 ‘이비이창녕(유)’에서 올해 1월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263-6번지 외 2필지 1만 6000㎡ 면적에 ‘발전시설(열병합발전)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며 올해부터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고형연료처리 발전소는 폐플라스틱 등 고형연료를 태워 열이나 전기를 얻는다. 인근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내 기존 LNG발전방식 스팀 공급을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대체해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온 고압의 증기(스팀)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적이다.

◇반대위 “생태파괴 및 주민건강 우려”= 건립반대 대책위는 열병합발전소가 우포늪과 직선거리로 3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생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형연료 연소시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환경파괴, 주민 건강권 침해 이유로 창녕군민 외에 인접한 대구시 달성군

일부 주민까지 반대한다”며 “고형연료처리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선(더불어민주당) 군의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군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포늪과 따오기로 대표되는 환경생태도시 창녕의 명성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고형연료로 처리해 태우는 SRF열병합발전 과정에서는 오염물질이 66가지,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물질이 26종류가 배출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이 배제된 점 등 심의위원 자체가 규정을 어기고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며 “28일 예정된 개발행위 심의는 위원 재구성 이후로 전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최고 수준 오염방지 시설 갖춰”=사업 시행사는 창녕환경운동연합의 소각 온도가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80도로 계획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소각온도가 850~1050도 완전연소조건으로 분명히 제시돼 있다. 이때 물의 온도가 380도라는 의미인데, 이를 오용한 조작된 통계”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시설을 갖춰 오염물질을 99% 제거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5일 사업설명회 겸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비이창녕 최강휘 대표는 “지금까지 주민과의 소통 자리를 7번 마련했는데 대합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악성 루머를 사실처럼 말하고 있어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운영하면 환경오염과 무관해 인근에 수만 가구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창녕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역민을 우선으로 2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고 세수 창출, 기업 유치, 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며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양철우기자



## 慶南日報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004면 사회

### 장애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원 조치 촉구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1인 시위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최근 장애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원 조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주시역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의당 김용국(사진) 진주시지역위원장은 “진주시 등 관련기관에서 장애아동학대가 일어난 ‘푸른샘어린이집’에 대해 폐원 조치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희성기자·사진=정의당



< 정보과 통보 >

## 경남자치경찰위, 스토킹 피해자 밀착 경호한다

**도비 지원받아 전국서 첫 신변 경호  
출퇴근 피습 방지·증거확보등 활동**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전국 위원회 중 처음으로 민간 신변 경호원을 활용한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보호 사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경남에서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중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68건, 2019년 209건, 2020년 190건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684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가 2022년에는 1424건으로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5월까지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661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찰의 검거 인원 또한 관련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38명, 2022년 589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5월까지 260명이 스토킹 범죄로 검거됐다.

보호사업 대상자는 경찰서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 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다.

민간 신변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1일 10시간씩 3일 동안 신변을 보호하게 되고,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간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민간 신변 경호원은 △출퇴근 및 수사기관 출석 시 등 근접 동행으로 피습

방지 △실내의 경우 건물 주변 대기 근무 △불법행위 시 영상촬영·녹음 등 증거확보 등을 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보호활동을 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도내 1급지 경찰서 10곳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성과와 필요성을 점검해 경찰서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치경찰위와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이 스토킹 등 피해자 신변 보호·지원이라는 도민의 여론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범 사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여청과 통보 >



## 마산중부경찰서, 외국인근로자와 사회공헌활동

마산중부경찰서(서장 서상태)는 관내 장군천 일대에서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진종상)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20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장군천 일대 환경정화뿐

만 아니라 외국인 대상 법질서 교육 등 범죄 예방 활동도 진행했다. 서상태 서장은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제고로 안정적인 체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혁 기자

## 慶南日報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010면 사람



## 진주경찰서, 금은방 대상 범죄예방 활동

진주경찰서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홍보 활동 및 방법 시설 점검에 나섰다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도내에서 금은방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수법과 예방법·범죄 발생 시 대응 요령을 홍보하고, 긴급신고시스템 설치 여부 등 방법 시설물을 점검했다. 정웅교기자



## 잇단 교통 사망사고에 함양군-경찰서 간담회

### 안전시설물 보강 등 논의

함양군과 함양경찰서가 26일 함양군청 군수실에서 최근 지역 내 교통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김현환 함양경찰서장을 비롯해 함양군 안전건설국·건설교통과, 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간부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월 말 함양군 수동면에서는 승용차와 이륜차가, 함양읍에서는 택배트럭과 이륜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연

이어 발생해 이륜차 운전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사고지점 안전시설물 보강 및 사고예방 교통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진 군수는 “경찰서와 협조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히 개선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kdwu@idomin.com



### 의령경찰서 대의초교 병설유치원생 안전교육

의령경찰서가 26일 대의초교 병설유치원에서 원생 9명에게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했다. 이날 보행 안전 3원칙 ‘서다-보다-걷다’ 교육과 함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통학버스 안전하게 타고 내리기 등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하청일 기자



## 법정서 대면한 홍남표 시장-고발인 “매수 가치 없어” “매수 논의 죄 지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공방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매수 제안을 받았다는 고발인이 증인석에 섰다. 고발인은 부시장 자리를 놓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창원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법정에서 털어놨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6일 오후 2시 315호 법정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홍 시장과 그의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ㄱ(60) 씨,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고 했던 ㄴ(41) 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홍 시장과 ㄱ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ㄴ 씨는 “홍 시장과 매수를 논의하면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라며 “죄를 지은 대가로 미래를 담보 잡혀서 공격당할 바에 훌훌 털고 싶었다”고 말했다.

홍 시장과 ㄱ 씨는 ㄴ 씨에게 창원시장에 출마하지 않는 대신 홍 시장을 돕는다면 경제특보나 부시장 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측은 “ㄱ 씨가 열심히 한다면 경제특보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했었고, 홍 시장에게 ㄴ 씨가 ‘부’가 돼 같이 열심히 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느냐”며 “그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한 근거라고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다. ㄴ 씨는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정과 부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은 매수자와 피매수자 모두 처벌하고 있다. 검사 측은 “ㄴ 씨 본인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형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고발했느냐”, “언론보도가 되면 본인 정치 인생에도 타격이 있을 게 분명한데 고발한 거냐”고 또 물었다. ㄴ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홍 시장과 ㄱ 씨 변호인은 그동안 법정에서 ㄴ 씨가 창원시장에 출마할 의도도, 매수할 가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ㄴ 씨는 자신이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던 점을 들면서 반박했다. 그는 홍 시장에 자리 제안을 받기 전까지 공약과 선거사무실, 홍보 펼침막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ㄴ 씨는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당적을 옮겼기 때문에 경선 참여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며 “아는 기자들에게 창원시장 후보군에 내 이름을 올려 달라고 말도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1월 26일 시작돼 아직 이어지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이 7월 10일, 8월 28일, 9월 11일까지 잡히면서 선고기일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 발언대

## 소중한 내 아이 지킬 '미아방지법'



염삼열

김해서부경찰서  
울하파출소 경위

보통 '미아'라고 하면, 단순히 길을 잃는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가출, 유괴,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우, 사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이탈하여 없어지는 모든 경우를 '미아'라고 한다.

미아는 대개 집 또는 공공장소에서 길을 잃은 경우, 타인이 금전 또는 양육의 목적으로 유괴해 가는 경우, 아동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 가정적·기타 문제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경우, 사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미아 예방을 위해서는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괴, 가출, 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담부서·DNA 자료 구축 부족해  
경찰 '미아방지 사전등록' 활용을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책감과 불안감,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거의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가기 힘들 만큼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경우 보호자는 생계도 잇은 채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

해마다 발생하는 미아 수는 5000명이 넘고 그중 4700여 명은 48시간 안에 보통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나머지 300여 명은 아동보호시설이나 미인가 시설 등에서 애타게 부모를 찾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실종 신고가 들어온 아이가 8세 미만이면 '미아'로, 그 이상이면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춘 나이라고 보고 '가출'로 처리하고 있다. 단순 가출로 처리된 아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찾는 속도가 늦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서 미아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곳은 공식기관으로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02-777-0182)'와 부모들이 자조적으로 결성한 '전국 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02-963-1256)'이 전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생계도 포기한 채 길에서 전단을 배포하거나 낫 놓고 당국의 연락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많은 부부가 아이를 잃어버린 후 갈등을 겪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아 문제는 비단 아이뿐 아니라 한 가정마저 파탄으로 몰고 갈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부모들은 하루빨리 경찰청에 미아를 찾는 업무만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DNA 검사의 적극 활용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인가 보호시설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파악 등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다음의 기본적인 '미아예방법'을 꼭 숙지하자.

첫째, 가까운 장소로 외출했을 때도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고, 자녀를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믿을 만한 친척이나 이웃에게 자녀를 돌봐달라고 꼭 부탁할 것. 둘째, 자녀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 집 주소 및 보호자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습시킬 것. 셋째, 낯선 사람들을 쉽게 따라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황극 연습과 자녀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재해 둘 것.

끝으로,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하는 것이다.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면 언제라도 24시간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통해 자녀의 얼굴과 지문, 신체특징 등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앱 '안전dream'을 통해서도 사전등록을 쉽게 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소중한 내 자녀를 내가 먼저 지키도록 노력하자.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 교제폭력 피해자 민간 경호, 모범사례 만들어야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이 민간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호 대상자는 경찰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범죄 위험이 높은 피해자다. 보호대상자가 경호를 요청하면 민간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씩 3일 동안 경호를 한다고 하니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보복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의 스토킹 등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2015년 7692명에서 2022년 1만2841명으로 급증했다. 경남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피해신고건수가 684건에서 지난해 1424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보복살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여야가 지난 21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그렇지만 피해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는 그나마 보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지만 교제폭력에 대한 보호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고위험 범죄 피해자 보호사업'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스토킹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민간 경호를 지원한다는 데 있다. 그동안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사례를 보면,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뒤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가 보복 위험을 감지할 때부터 선제적으로 민간 신변경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돋보인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고위험 범죄 피해자 보호사업을 잘 정착시켜 모범 사례로 확산시키고, 조례로 입법화되길 바란다.



오늘의 날씨

빗줄기 오락가락... 최대 100mm

27일 부울경은 강약을 반복하면서 비가 오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예상강수량 30~100mm.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2023년 6월 27일 (음 5월 10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자외선	피부	냉방	빨래
30	30	50	60	20

맑음	맑은 후 구름많음	한때 비
구름조금	구름많은 후 맑음	천둥번개
구름많음	호리고 비	호리고 비눈
흐림	소나기	호리고 눈

	해돋이/해질		달돋이/달질
05:11	19:42	13:14	00:35

물때

	밀물	썰물
부산	01:57 15:10	08:07 21:04
인천	10:27 23:16	04:13 17:00
포항	11:10 21:43	04:32 17:21
통영	02:36 15:43	08:58 21:31

바다날씨

알바다	풍향	풍속	파고m
남해서부	남서-서	8-12	1~2
남해동부	남서-서	5-11	0.5~2
동해남부	남-남서	8-12	1~2.5
동해중부	남-남서	7-13	1~2.5
서해중부	남-남서	8-15	1.5~2.5
서해남부	남서-서	8-12	1~2

주간날씨

	28(水)	29(木)	30(金)
부산	22-27	23-27	23-26
울산	22-31	24-28	24-27
진주	23-30	23-28	23-28
김해	22-29	24-28	24-28
창원	22-30	23-28	23-27
통영	21-26	22-26	23-25
대구	23-33	24-31	24-30
세종	23-31	24-29	23-29
서울	22-29	23-27	22-27
제주	24-31	24-30	25-29